

2강

단락이란 무엇인가?

글은 단락의 펼침입니다. 그런데 단락에 대해 전혀 생각없이 글을 쓰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은 글쓰기의 기본인 단락의 개념과 단락을 펼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정수 선생님이 쓰신 <글쓰기의 기본 이론과 서사문 쓰기>의 기본 텍스트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1) 단락이란?

단락(paragraph) 또는 문단이란 문장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글의 중간 조직체이다. 우리는 앞에서 일상 대화나 편지 또는 수필이나 논문 따위가 많은 문장들이 이어져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그런 글들을 이루는 문장들은 관련 깊은 것들끼리 한데 어울려 작은 조직체를 이루게 마련이다. 곧 문장들은 아무 관계도 없이 따로따로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내용적으로 관계가 있는 문장들끼리 한 묶음씩 작은 조직체를 만들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문장들의 묶음으로 이루어진 조직체를 우리는 단락 또는 문단이라 부른다.

[보기 2.1]

민수는 부지런하다. 그는 아침 여섯 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이부자리를 개고 방안 청소를 한다. 세수를 하고 바깥에 나가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맨손 체조를 한참 동안 한다. 이윽고 그는 비를 들고 집 앞 마당과 길을 쓴다. 다시 방안에 들어 와서는 신문을 읽고 시간이 남으면 어제 읽던 책을 펴 든다. 어머니가 차려준 아침밥을 먹고는 가방과 전철에서 읽을 책을 가지고 집을 나선다. 이런 아침의 일과만 보아도 그가 부지런한 젊은이라는 것을 알만 하다.

위 글은 모두 7개의 문장들로 짜여진 단락인데 그 문장들은 모두 "민수의 부지런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서로 긴밀하게 결합하여 있다. 단락이란 이렇게 "한 중심되는 생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유기적으로 짜여지는 한 묶음의 문장들을 가리킨다.

단락이란 결국 한 토막글이다. 그 자체 안에 중심 사상이 있고 그것을 받

들어 나타내는 문장들이 모여서 이루는 한 토막의 글이다. 그것이 비록 여느 글처럼 길고 복잡하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자체로서 일정한 짜임새를 가진 작은 글인 것이다. 이런 짧은 글도 실제로 쓰이는 수가 있다. 쪽지 글이나 간단한 설명서나 시험 답안지 같은 데서는 한 단락만으로 독립되어 쓸 수가 있다.

일반 글은 대개 여러 단락들이 모여서 이루어지게 된다. 각기 한 중심 사상을 가진 단락들이 모여서 더 큰 주제를 떠받드는 방식으로 좀더 긴 일반 글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조직체에서 계나 과와 같은 하부 조직체가 모여 더 큰 조직을 이루는 것과 같은 방식이 된다.

(2) 단락의 짜임새

단락은 일반적으로 중심 문장과 뒷받침문장으로 이루어진다. 중심 문장은 한 단락에서 다루어질 내용적 핵심을 나타내는 문장으로서 소주제문(topic sentence)이라고 부른다. 위 보기에서는 맨처음의 "민수는 부지런하다"라는 문장이 중심 문장 곧 소주제문이다.

(3) 소주제문과 소주제

단락의 중심 문장인 소주제문은 그 단락에서 다룰 중심 문제 곧 소주제(topic)를 그 핵심 요소로 지닌다. 위 [보기 2.1]의 소주제문에서 "부지런함"이 그것이다. 이것은 그 단락의 으뜸 생각으로서 모든 뒷받침문장들을 거느리고 다스리는 우두머리의 구실을 한다. 뒷받침문장들은 이 소주제를 내용적으로 펼치고 떠받들도록 배열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소주제를 "다스림 생각(controlling idea)"이라 부르기도 한다.

다음 단락의 소주제문에 나타난 소주제가 그런 다스림 생각으로서 글 전체 내용을 지배하고 있다.

[보기 2.2]

사람은 첫째로 사람에게서 배운다. 사람의 스승은 우선 사람이다. 글을 읽는 것, 간접적이긴 하나 내용에 있어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우리는 글을 배운다면 먼저 책을 생각한다. 그러나 그 때에도 사람에게서 배우고 있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도 인간은 인간 사회에서 배우는 것이 가장 많고 의의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옛날부터 성현들이 혹은 인(仁)을 혹은

은 사랑을 혹은 자비를 가르쳤음은 한결같이 인간 관계를 떠나서 살아갈 수 없음을 의미하였던 것이다. 사람은 사람에게서 배우고 사람에 의하여 구실을 하게 마련이다.
(박종홍, "학문의 길")

위 글의 첫 문장에 나타난 "사람으로부터의 배움"이 소주제이며 이것은 그 뒤의 모든 뒷받침문장들을 다스린다.

(4) 뒷받침문장

한 단락의 뒷받침문장은 소주제 또는 소주제문을 내용으로나 분량으로나 알맞게 펼쳐서 충실한 단락을 이루는 구실을 한다. "내용으로 알맞다"는 것은 뒷받침문장이 소주제문과 내용적으로 어긋남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분량으로 알맞다"는 것은 소주제문을 충분히 설명할 만한 수효의 문장들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다음에서도 소주제문을 알맞게 펼친 단락을 볼 수가 있다.

[보기 2.3]

우리 사회에도 이웃 사랑의 봉사 정신이 생활화되어 가고 있다. 세상이 각박해지고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한편에는 두고두고 우리들 마음을 촉촉하게 적시는 미담의 주인공들도 늘어 나고 있다. 어려운 살림에 한 푼 두 푼 모은 전 재산을 학교 발전에 써 달라고 기부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가 하면, 묵묵히 드러나지 않게 사회의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 열심히 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삭막한 세상을 살맛나게 만들어 주고 있다. 한숨과 눈물로 지새는 장애자들을 찾아서 헌신적으로 돌보아 삶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의지할 곳 없는 불쌍한 노인들을 찾아서 모닥불을 쪼이고 따뜻한 사랑의 봉사를 줄곧 이어가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런 이웃 사랑의 정신은 본디 종교계를 중심으로 펼쳐져 왔는데 요즘에는 대학에서 그런 봉사 활동에 학점을 부여하여 장려하는 일도 생겨났고 언론 기관에서 그런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기도 한다. 이처럼 우리 나라도 불우한 이웃들을 돌보는 봉사 정신이 온 사회의 각광을 받으며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다.

-- 김보들맘, "봉사 정신에 대하여"--

위 글의 소주제는 "봉사 정신의 생활화"이고 그것은 맨 앞에 소주제문("우리 사회에도 이웃 사랑의 봉사 정신이 생활화되어 가고 있다")으로 나타나 있다. 그 뒤의 모든 문장들은 그 소주제를 펼치는 뒷받침문장들이다. 이 문장들은 모두 그 소주제와 내용적으로 어긋남이 없을 뿐 아니라 그 분량 면에서도 충분하다고 할 수가 있다. 웬만한 사람이면 그 소주제를 잘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펼쳤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이 보기 글의 뒷받침은 알맞다고 할 수가 있다.

그러나 만일 위 보기의 뒷받침문장 중에 소주제의 내용과 어긋나는 것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

[보기 2.3']

우리 사회에도 이웃 사랑의 봉사 정신이 생활화되어 가고 있다. 세상이 각박해지고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한편에는 두고 두고 우리들 마음을 촉촉하게 적시는 미담의 주인공들도 늘어 나고 있다. 어려운 살림에 한 푼 두 푼 모은 전 재산을 학교 발전에 써 달라고 기부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가 하면, 묵묵히 드러나지 않게 사회의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 열심히 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삭막한 세상을 살맛 나게 만들어 주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도 선진 복지국가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기주의 사로 잡혀 있는 사람들이 더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말이다.

에서 밑줄 친 내용이 무심코라도 끼어 든다면 그것은 소주제를 떠받들지 못하고 오히려 해치게 된다. 그런 문장은 소주제를 독자에게 납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깎아 내려서 역효과를 가져 오거나 혼선을 가져오게 만들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소주제와 내용적으로 어긋나는 문장이 없더라도 다음과 같이 뒷받침문장의 분량이 너무 적으면 소주제를 충분히 발전시키지 못한다.

[보기 2.4]

우리 사회에도 이웃 사랑의 봉사 정신이 생활화되어 가고 있다. 세상이 각박해지고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한편에는 두고두고 우리들 마음을 촉촉하게 적시는 미담의 주인공들도 늘어 나고 있다. 어려운 살림에 한 푼 두 푼 모은 전 재산을 학교 발전에 써 달라고 기부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다.

와 같이 뒷받침문장을 두어 개 정도만 늘어 놓고 말면 소주제를 충분히 펼쳤다고 할 수가 없다. 그 정도의 설명만 가지고는 독자가 그 소주제를 충분히 납득할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것은 뒷받침이 빈약한 단락 또는 내용이 열은 단락이라고 하게 된다.

(5) 뒷받침문장의 알맞은 분량

한 단락의 뒷받침문장은 몇 개나 되면 알맞을까? 그 수요가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여러 필자들이 쓴 단락들을 살펴보면 평균 5개에서 8개의 뒷받침문장이 쓰이게 됨이 예사이다. 소주제가 비교적 간단한 것이면 서너 개의

뒷받침문장으로든 무방한 때도 있겠지만, 다소 복잡하거나 중요한 소주제이면 그보다 많은 수효의 뒷받침문장이 쓰여야 할 것이다.

단락이 너무 길어지게 될 경우에는 소주제를 더 작은 범주로 나누어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테면, "내 친구의 장점"이라는 소주제를 한 단락에서 다룬다고 하면 아무래도 단락이 길어지고 복잡해 질 것이다. 여러 장점을 다 언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럴 때에는 그 장점을 몇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정직함", "성실함", "부지런함" 따위와 같이 더 작은 범주의 소주제를 내세우는 것이 다루기가 편할 뿐더러 단락이 길어지는 것을 막을 수도 있을 것이다.

[보기 2.5]

내 친구 경구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그는 누구보다도 정직한 성품을 지니고 있다. 그 애가 거짓말하는 것을 본 일이 없다. 너무 고지식하다는 편견을 들을 정도로 곧이곧대로 말하고 행동한다, 그는 또 성실하다. 자기 맡은 바 일을 충실히 해 낸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남에게 미루는 일이 없이 자기가 해낸다. 또 어른이 일을 시키면 남이 보거나 말거나 한결같이 일을 한다. 그뿐 아니라 그 애는 어떤 아이들보다도 부지런한 아이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안 청소를 하고 바깥 마당을 쓸고 있는 것도 내가 가끔 목격했다. 숙제 같은 것도 미루는 일이 없이 곧장 해서 가져 온다. 그래서 양체 같은 애들은 그 애 숙제를 베끼려고 버르는 일도 많다. 청소 시간만해도 남의 두 배는 될 정도로 쉴새없이 손을 놀린다. 그밖에 그는 공부도 잘하여 성적이 좋고 운동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친구들 간에 싹싹하고 마음 좋아 그 애만 만나면 모두 마음이 편하다고들 한다. 이처럼 경구는 누구에게나 자랑할 만한 모범적인 학생으로서 갖추어야 할 장점을 죄 갖추었다.

위에서처럼 "장점" 전부를 한 단락에서 다루게 되면 대강만 언급하고 넘어가도 상당히 긴 단락이 된다. 더구나 그런 여러 장점을 자세히 다루려고 하면 단락이 너무 길어지게 되어 읽기에 부담을 줄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럴 때에는 다음과 같이 각 장점을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서 각기 한 단락씩으로 다루면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고 또 초점이 선명한 단락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보기 2.5']

내 친구 경구는 여러 가지 장점을 지니고 있는데, 우선 그는 누구보다도 정직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 애가 거짓말하는 것을 본 일이없다. 너무 고지식하다는 편견을 들을 정도로 곧이곧대로 말하고 행동 한다. 언젠가는 지각을 했는데, "왜 지각했느냐"는 물음에 "어제 밤늦게까지 놀아서 아침에 늦잠을 잤습니다."라고 대답해서 선생님께 혼이 난 적이 있다. 뻔히 혼이 날 것을 알면서도 솔직히 대답을 했던 것이다. 대충 다른 핑계를 대면 선생님의 꾸중을 피해 갈 수 있었을 터인데, 경구의 솔직한 성품은 그런 사소한 거짓말조차도 입밖에 내지를 않

는다. - 경구는 장점이 많다.

그는 또 성실하다. 자기 맡은 바 일을 충실히 해 낸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남에게 미루는 일이 없이 자기가 해낸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은 남이 보거나 말거나 한결같이 해 나간다. 경구가 주변 일을 할 때면 우리 교실은 몰라 보게 깨끗해 진다. 수업을 마치고 굳이 청소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경구가 쉬는 시간마다 걸레질을 해대니 교실이 더러워질 수가 없는 것이다. 다른 아이들이 떠들고 장난 하는 와중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 나가는 경구의 성실성은 이미 정평이 나 있다. --경구의 성실함

그뿐 아니라 그애는 어떤 아이들보다도 부지런한 아이이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안 청소를 하고 바깥 마당을 쓸고 있는 것도 내가 가끔 목격 했다. 숙제 같은 것도 미루는 일이 없이 곧장 해서 가져온다. 그래서 양채 같은 애들은 그애 숙제를 베끼려고 버르는 일도 많다. 청소 시간만 해도 남의 두 배는 될 정도로 쉴새 없이 손을 놀린다. 그의 부지런함은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 경구의 부지런함

그밖에도 그의 장점은 많다. 그는 공부도 잘하여 성적이 좋고 운동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친구들 간에 싸싸하고 마음 좋아 그애만 만나면 모두 마음이 편하다고들 한다. 이처럼 경구는 누구에게나 자랑할 만한 모범적인 학생으로서 갖추어야 할 장점을 죄 갖추었다.- 그밖의 장점

단락은 글쓰는이의 지식 수준에 따라서도 얼마쯤 차이가 있을 것이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는 일반 지식인의 차례로 점차 생각이 깊은 글을 쓰는 것이 보통일 것이다. 이에 따라 같은 소주제를 다루는 단락이라도 그 길이나 충실도가 다를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초등학교가 이루는 단락이라면 다음에서 보듯이 두세 문장 정도면 무방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보기 2.6]

나는 우리 아버지를 존경한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모르는 것을 잘 가르쳐 주신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가족들을 꼼꼼히 아껴 주고 집안을 잘 가꾸어 주신다. 동네 사람들도 우리 아버지 말을 잘 듣는다.

중학교 정도의 글일 때에는 단락의 길이가 더 길어질 수가 있을 것이다. 그만큼 생각이 더 깊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보기 2.7]

나는 우리 아버지를 존경한다. 아버지는 가족들을 위해서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으신다. 집에 오시면 쓰러지듯이 깊은 잠에 빠질 정도로 피곤한 회사 생활을 20여년 동안 불평 한 마디 없이 견뎌 오셨다. 아버지는 회사 일이 어렵기는 하지만 그 회사를 그만 두게 되면 가족은 누가 먹여 살리느냐 하신다. 오로지 가족을 위해서 어려움을 묵묵히 참아 오신 것이다.

더 나아가 고등학교 정도가 되면 단락은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보기 2.8]

나는 우리 아버지를 존경한다. 우리 아버지는 평소에 화를 내시는 법이 없으시다. 가끔씩 어머니께서 심하게 잔소리를 늘어 놓으셔도 그냥 웃고만 계신다. 우리들에게도 너그러우시다. 성적이 떨어져도 성내시지 않는다. "다음에는 잘 하렴." 하시고는 그 뿐이다. 집 밖에서도 아버지의 인자하심은 소문이 나 있다. 우리 집에 다녀 가시는 분들은 한결 같이 "인자하신 분"이라는 말로 우리 아버지를 칭송한다. 모든 일에 그렇게 너그러운 분을 뵈는 적이 없다고들 하신다.

대학생 정도의 글에서는 단락은 더 길어지고 구체적이 될 것이다.

[보기 2.9] 대학생의 글

나는 우리 아버지를 존경한다. 우리 아버지는 사랑을 직접 실천하실 줄 아는 분이기 때문이다. 언젠가 아버지는 어떤 할아버지와 함께 오신 적이 있었다. 길에서 떨고 있는 노인을 보지 못해 집으로 모셔온 것이다. 어머니가 "당신이 무슨 사회 사업가예요?" 하고 언짢아 하신 것은 물론이다. "밖이 몹시 춥잖아. 날이 좀 풀릴 때까지만 보살펴 드리자고..." 화를 내시는 어머니를 달래는 아버지의 모습에는 사랑의 마음이 배어 있었다. 그 후에도 이런 일이 종종 있었다.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만 보면 아버지는 그들을 돕는 데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다. 어떤 때는 가족들보다도 그들을 더 우선 생각하는 것 같아 서운함이 생길 정도이다. "박애 정신"이라는 다소 거창한 표현이 아버지에 대한 표현으로는 안성맞춤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아버지가 평소에 사랑을 실천하려는 마음이 그만큼 크신 까닭이다. 나는 이런 점에서 아버지를 훌륭한 분으로 존경한다.

3. 단락 짜임새의 유형

단락은 소주제문과 뒷받침문장이 어떤 순서로 어울리느냐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소주제문을 어느 위치에 두고 뒷받침문장을 배열하느냐에 따라 단락의 짜임새가 몇 가지로 달라지는 것이다. 이런 위치 관계에 따라 단락은 두괄식, 양괄식, 미괄식, 중괄식 그리고 무괄식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1) 두괄식 단락 [소주제문 + 뒷받침문장들]

두괄식의 단락은 소주제문을 맨 앞에 내걸어 놓고 그것을 떠받드는 뒷받침문장들을 그 뒤에 늘어놓는 짜임새이다. 첫머리 부분에 단락의 핵심이 놓이고 그 뒤에 그것을 풀이하거나 합리화하는 뒷받침 요소들이 이어지는 꼴이다.

[보기 3.1]

사람은 누구나 가치를 사랑한다. 가치 곧 진선미를 향해서 우리 마음은 움직이게 마련이다.

아름다운 것, 착한 것 그리고 참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본성적으로 끌리고 세차게 움직인다. 아름다운 꽃이나 그림을 보고 기뻐하지 않은 사람은 드물며, 착한 어린이의 순진한 행동을 보거나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이들을 대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 이는 거의 없다. 누구나 모든 일에서 거짓보다는 참다운 것을 천성적으로 좋아하고, 특히 탐구심이 강한 이들은 진리를 향해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움직이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를 오롯이 바치는 일조차 있다.

전체 내용을 요약한 소주제문이 맨 앞에 제시되어 있다. 그 뒤에는 소주제문이 나타낸 요지("가치의 사랑")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이 글은 두괄식의 구조를 보이는 것이다.

문장력의 기본을 튼튼히 다지고자 하는 이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 두괄식 단락을 이루는 요령을 알아 두어야 한다. 그 이유로는

첫째, 이 두괄식은 소주제문을 앞에다 두고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전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마치 목표점을 앞에 두고 전진하는 것처럼 빗나가지 않는 뒷받침이 가능하게 한다.

둘째, 두괄식은 글을 읽는 데도 매우 능률적이라는 점이다. 두괄식은 그 요지를 첫머리에서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읽기가 편하다.

셋째, 두괄식은 다른 모든 단락 구조 유형의 기본이 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다른 유형의 단락은 이 두괄식을 다소 조정하거나 손질하면 이를 수가 있다. 이처럼 두괄식은 가장 효율적이고 기본적인 단락 유형이 되므로 글쓰는 이는 누구나 일차적으로 익혀 두어야 한다.

2) 양괄식 단락 [소주제문 + 뒷받침문장들 + 소주제문]

양괄식의 단락은 소주제문을 첫머리에 내걸고 그것을 뒷받침한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소주제문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는 짜임새이다. 이 단락은 실제로 두괄식의 짜임새와 같은 것인데, 끝에 가서 소주제문의 내용이 한번 더 되풀이 된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앞의 [보기 3.1]을 양괄식으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기운 글씨로 쓰인 부분이 뒷 쪽에 첨가된 소주제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가치를 사랑한다. 가치 곧 진선미를 향해서 우리 마음은 움직이게 마련이다. 아름다운 것, 착한 것 그리고 참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본성적으로 끌리고 세차게 움직인다. 아름다운 꽃이나 그림을 보고 기뻐하지 않은 사람은 드물며, 착한 어린이의

순진한 행동을 보거나 남을 위해 서 희생을 하는 이들을 대하고 호뭇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 이는 거의 없다. 누구나 모든 일에서 거짓보다는 참다운 것을 천성적으로 좋아하고, 특히 탐구심이 강한 이들은 진리를 향해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움직이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를 오롯이 바치는 일조차 있다. 이처럼 사람은 진선미의 가치를 발견하였을 때 그것을 본성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양괄식을 이루는 데에 주의할 점은 마지막의 소주제문이 첫머리의 소주제문과 내용적으로는 일치하되 그 표현 형식을 달리 하는 점이다.

3) 미괄식 단락 [뒷받침문장들+ 소주제문]

미괄식 단락은 뒷받침문장들이 앞에 놓이고 소주제문은 맨 끝에 제시된다. 소주제문의 위치로만 보면 두괄식과 반대의 짜임새이다.

이 미괄식의 경우도 따져 보면 두괄식과 거의 마찬가지로의 요령으로 전개된다. 두괄식에서 소주제문을 뒤로 옮기고 약간의 조정을 하면 미괄식이 이루어진다. [보기 3.1]의 두괄식 단락을 미괄식으로 고쳐 보면 그 요령을 알 수 있다.

가치 곧 진선미를 향해서 우리 마음은 움직이게 마련이다. 아름다운 것, 착한 것 그리고 참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본성적으로 끌리고 세차게 움직인다. 아름다운 꽃이나 그림을 보고 기뻐하지 않은 사람은 드물며, 착한 어린이의 순진한 행동을 보거나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이들을 대하고 호뭇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 이는 거의 없다. 누구나 모든 일에서 거짓보다는 참다운 것을 천성적으로 좋아하고, 특히 탐구심이 강한 이들은 진리를 향해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움직이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를 오롯이 바치는 일조차 있다. 이처럼 우리는 아름다움, 선함 그리고 참다움 곧 가치를 본성적으로 사랑한다.

위 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괄식인 [보기 3.1]에서 다른 뒷받침문장들은 거의 그대로 두고 다만 소주제문을 뒤로 이동하면서 그 앞에 적절한 접속어(한마디로, 이처럼, 따라서 따위)를 써서 접합시키면 자연스런 미괄식 단락이 되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단락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쓰는 글들이 많아서 필요 없는 들여쓰기가 무질서하게 나타나는 수가 허다하다. 소주제문과 뒷받침문장을 한 형식 안에 묶어 두지를 않고 분산시켜 놓아서 형식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매우 허술한 단락이 되는 수가 너무나 많다.

더구나 한 문장만을 놓고 들여쓰기를 하여 문장마다 고립 시키는 일은 금물이다. 어떤 이는 일부 문장을 강조한다는 명목으로 또는 시각적으로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문장들을 마음대로 따로 떼어서 새 단락을 만드는 일이 있다. 그것은 잘못된 강조법이다. 단락이라는 조직을 깨뜨리고 마는 것이며 소주제에 대한 충실한 뒷받침을 해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어떤 한 문장을 시각적으로 잘 눈에 띄게 고립시키는 것은 얼핏 보기에는 강조 효과가 있는 듯하다. 그러나 그런 시각적인 효과만 일삼고 충분한 뒷받침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시야를 벗어나자마자 뇌리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이 보통이다. 왜냐하면 뒷받침이 없이 고립시킨 문장은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어떤 중요한 문장은 시각적으로 돋보이게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충분히 설명 또는 논증하여 독자를 납득시키는 뒷받침과 함께 내세우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따라서 어떤 문장을 강조하고자 할 때 뒷받침 서술이 미약하거나 그것과 유리시킨 채 시각적으로만 돋보이게 하는 것은 잘못된 강조법이다.

위에서 살핀 바를 바탕으로 단락의 일반 개념을 정리하면, "단락은 주제의 일부를 펼치는 문장의 조직체로서 그 형식이 뚜렷이 구분되는 글 속의 글"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단락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간추릴 수 있다.

- (1) 단락은 글 전체 주제의 일부를 펼친다
- (2) 단락은 내용적으로 관련을 가진 문장들로 엮어진 단위 조직체이다.
- (3) 단락은 뚜렷한 형식적 경계를 지닌 글 속의 글이다.